| 현불 논단 |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까다로운 질문이지만 근원적 의문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대표적 화두
묘비에 새겨질 내용 생각하면 쉬워

불자들은 분명하게 답 알고 있어야
업과의 연기적 관계를 이해한다면
자기자신은 과거생 업의 결과일 뿐

의미·가치있는 삶 만드는 과정은
원력(願力)에 있음을 명심해야 해

“당신은 누구입니까?” 법회 때 종종 불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처음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같은 질문을 여러번 받은 불자들도 난감해하곤 한다.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당신은 누구인가(Who are you?)’ 라는 질문은 비단 불교의 수행이나 여타 명상에 관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듣게 되거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의문일 것이다. 이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거나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간에 좋은 대답을 찾기에 무척 까다로운 질문임에 틀림없다.

비단 재가불자뿐 아니다. 출가자나 전문수행자들도 이 질문의 대답이 궁하고 까탈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는 참선수행의 유명한 화두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화두를 든 수행자는 여기에 대한 답을 평생토록 구해가는 것이다. 평생을 구하고 찾아도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화두이다. 어떤 스님이 임종을 맞아 마지막으로 입에 담은 음성이 평생 수행하던 화두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질문을 쉽게 변화시켜본다. “당신의 묘비나 납골함에 새겨질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묘비나 납골함에 새겨지는 내용은 무척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년월일 정도입니다. 더 없습니다.” 때로 고인의 요청에 따른 묘비명을 새기거나, 남은 사람들이 사랑과 추억의 글을 새겨 고인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런 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름 몇 글자와 나고 죽은 기록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남는 전부인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의 너무나 분명한 현실적 반영이다. 일생을 ‘나(I, MY, ME)’ 라는 생각에 몰입하고 살아왔고, ‘나’ 밖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한없이 단순함과 초라함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불자들은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살아오며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세 가지 업(業)밖에 별도의 자기를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은 업의 지은 바일 뿐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현께서 ‘죽음에 이르러 어떤 물건도 가져갈 수 없고 다만 일생에 지은 업(業)만이 자신을 따른다.’ 고 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삶의 과정 중에서 기억에 남고 기록될 만한 업들이 바로 가장 분명한 ‘자신’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과 자신과의 연기적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바로 보고 아는 길인 것이다.

누구라도 불자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그 답은 바로 원력(願力)에 있다. 원력은 불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갖는 내면적인 결심과 그를 성취하기 위해 기울이는 힘을 뜻하는 것이다. 스스로 업장이 무겁다 생각하면 ‘참회기도’ 를 봉사와 보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비보시행’ 을 또는 경전공부나 참선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공부와 수행’ 을 불사와 포교를 원한다면 ‘불사와 전법’ 을 원력으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을 때 “저는 기도불자입니다.” 또는 “봉사와 보시를 행하는 불자입니다.”라는 대답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원력보살’ 의 스스로를 확립하고 원력을 성취하는 불자로서의 자신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칭찬·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한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수록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므로 괴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소리는 몸에 붙지 않고 다만 허망한 말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반성하여 허물이 없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비방하고 힐난하는 말에 이끌려 다니다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비방할 때는 그들의 말에 끌려 다니면서 마음 상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비방 받을 행위를 했는지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린다거나 화를 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의 병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데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도 비방도 다 속절없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쁜 업을 열심히 짓고 있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에머슨은 칭찬에 대해 “일상사에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굴욕적인 경험이 있다. 바로 ‘바보 같은 칭찬의 얼굴’ 이다”라고 말합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칭찬에 흔들리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에머슨은 비난에 대해서도 “대중의 못마땅한 표정에는 뜻없이 짓는 상냥한 미소와 마찬가지로 깊은 뜻이 없다” 라고 합니다. 칭찬과 비난은 마치 바람이나 신문기사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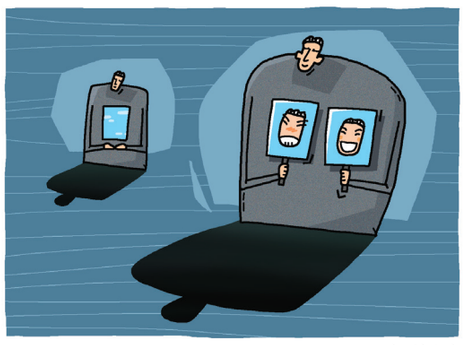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신의 중심이 똑바로 서 있다면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불안정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남이 아무리 칭찬해 준다 하여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남이 아무리 비난을 퍼부어도 그 역시 부질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일을 꾸미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많은 부분을 내가 아닌 남의 가치관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가 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을 얼마나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흥천사명 동종, 이제 유랑 끝내자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의 시대였다. 덕수궁에 야외에 전시돼 있다가 현재는 복원 작업 중인 보물 ‘흥천사명 동종’ 은 숭유억불 탄압을 상징하는 불교문화유산이다. 연산군은 재위 10년째 원각사를 폐사시켰고 이 자리에 기생을 기르는 장악원을 세웠다. 같은 해 태조 이성계가 세운 흥천사와 흥덕사가 유생들의 방화로 소실됐지만, 연산군을 이를 모른 척 했다.

이후 중종이 왕이 됐지만, 유생들의 불교 탄압은 계속됐다. 유생들은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던 흥천사의 사리각을 방화했고, 그렇게 흥천사는 완전히 소실됐다. 흥천사명 동종의 유랑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동대문에서 광화문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창경궁과 덕수궁으로 위치를 옮겼다.

200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기까지 흥천사명 동종은 방치되다시피 했다. 관람객들이 들어와 종 내부에 수정액으로 낙서를 할 정도였다. 흥천사명 동종은 2018년 덕수궁 광명문 이전으로 보존처리에 들어갔고, 조만간 보존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흥천사명 동종의 유랑은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4월 19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회의에서 보호각 건립 위치를 덕수궁에서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으로 변경할 것을 보고했다.

불교학계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적지 않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흥천사’ 라는 사찰명이 명확한 성보를 박물관 야외 전시물로 전락시킨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애초에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을 관리 · 전시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다.

조만간 문화재청은 조계종을 방문해 흥천사명 동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비운의 성보 흥천사명 동종의 500여 년의 유랑을 끝내는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새롭게 거듭날 법화종을 기대한다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에 관효 스님이 공식취임했다. 오랜 종단 혼란이 종식되고 총무원장 서리체제에 이어 취임하는 정식 총무원장인 만큼, 스님을 향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법화종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과거 빛나던 위상을 기억하는 종도들이 더욱 그렇다. 법화종은 1945년 창종한 전통종단이다. 법화종 원로스님들이 기억하는 종단은 15개 교구와 1700여 사암, 120만 교도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제3종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법화종은 반복되는 내홍과 혼란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종단 원로 일조 스님의 한탄이 그 현실을 바로미터로 드러낸다. 일조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우리 종단이 승려 기강확립과 도제양성에 소홀한 채 수십년을 흘러오다 보니, 부적격자와 비행승려들이 곳곳에서 세속비리와 야합해 종무행정마저 농단하며 종단 파국을 초래했다”고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중심으로 한 前집행부가 종단 정상화 원력을 세워 실천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했던 각종 소송도 상당수 마무리됐고 여법한 선거를 통해 정식 총무원장 체제가 개막했다.

이제 남은 것은 종단이 다시 일어설 동력을 갖추지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다. 관효 스님의 첫 취임일성이 종단 변혁과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다. 법화종은 각종 내홍과 혼란으로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과거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법화종에 격려와 기대를 전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